

진남이



리 혁

이름이 참 좋다.

참된 사내가 되라는 그 이름...

진남이는 몸집이 어른처럼 컸다. 목소리도 변성기를 넘긴 어른목소리처럼 걸걸했다. 13살에 벌써 키가 아버지만 한것을 보고 유격구마을 사람들은 저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어이구, 저 앤 암만 봐도 아버지가 바뀐 것 같수다페.》

《모릅넨다. 혹시 저 애 친할애비가 왕궁을 지키던 큰 장교일지 뉘 알겠수?》

진남이는 그런 말을 어디 가나 듣곤 하여 그저 씩 웃기만 했다.

통통한 얼굴에 술진 두눈섭, 입술도 넓은 붓으로 뺨 그은것처럼 두꺼웠고 그우에 붙은 코도 역시 말그대로 주먹코다.

그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체통처럼 사내쌌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유격구에 들어와 꼭 닳새만에 있는 일이다. 웬간한 아이같으면 새로운 환경에 익숙되지 못해 주접이 들거나 동무들과 말도 붙이지 못했지만 그는 달랐다.

그날 아동단에서는 적들의 공세에 대처하여 산중턱에 돌무지를 만들기로 하였다. 말이 쉽지 우선 통나무를 베여다가 사각방틀을 짜고 잘 익은 떡호박만 한 돌들을 날라다 무너지지 않게 쌓아야 하는 공사였다.

《그까짓거. 선생님, 우리가 합시다.》

아동단분단장도 분조장들도 있었지만 진남이는 제일먼저 소리쳤다.

지도원선생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고운 반달눈을 동그랗게 떴다. 맡겨진 과제가 아름답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던 아동단원들도 진남이의 호소에 입을 딱 벌렸다.

그중에는 (저 애라면 할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동단원들은 수림속으로 와 몰려갔다.

진남이는 제 몸통만 한 나무를 잡고 헹헹 도끼질을 해댔다. 고향이 자강도 산골이라 도끼질하는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 한 번 도끼질에 어른손바닥만 한 도끼밥이 획획 튀어났다.

《히-야! 정말 썬데?》

《매바위굴에 곰이 나타났어. 봐, 꼭 나무 열매를 떨구려고 두드리는 곰같지 않니?》

《애애, 사람보고 곰이라니? 소년장수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긴 한데 저것 봐, 강우한테 비하면 꼭 곰이라니.》

《하긴 그렇구나, 하하하!》

아동단원들이 진남이와 한조가 되어 일하는 강우를 보며 웃음판을 펼쳤다.

흥겨운 웃음판우에 떠올려진 강우는 진남이에 비하면 나이는 같아도 키도 작았고 몸

집도 체소했다. 마치 어른옆에 선 아이, 꿈과 함께 선 오소리같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진남이는 걸싸게 일을 제껴나갔다. 통나무를 다듬어 자르고 그것을 날라 방틀을 쌓는 일이며 바위돌들을 굴러오는 힘든 일들을 척척 해나갔다.

돌무지를 만드는 작업은 예상외로 빨리 끝났다. 이 일로 하여 진남이는 동무들의 경탄의 대상으로, 아동단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떠받들리웠다.

그날 저녁이었다.

일제놈들을 족쳐버릴 굉장한 《무기》를 또 하나 마련했다는 공지를 안고 아동단원들은 떠들썩하며 저녁밥을 먹기 시작했다.

통나무로 만든 밥상에 앉아 진남이와 함께 밥을 먹던 강우가 금시 숨넘어가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으-앗!》

아동단원들은 깜짝 놀라 강우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진남이는 눈을 쾅하니 뜨고 물었다. 강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밥사발밑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바... 밥사발밑에... 바... 밥상에 바퀴가...》

《으응?》

강우가 가리키는 도꼬마리만 한 바퀴를 보고 진남이는 통쾌하게 웃어댔다.

《하하하. 아니, 고만한 바퀴가 뭘 무섭다구 떨면서 그래?》

강우는 진남이가 바퀴를 집어버려서야 밥상에 다시 앉았다.

《에이, 난 바퀴라면 막 무서워.》

《너 이제 보니 형편없는 겁쟁이로구나.》

《체, 너 바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몰라서 글지. 아무리 고만한 바퀴래두 귀구멍에 들어가보지? 막 정신 내갈리거던.》

강우가 그러면서 어릴적에 바퀴새끼가 귀구멍에 들어가 혼난 일을 이야기했다.

진남이에게는 그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바퀴때문에 정신을 내팽개칠 정도로 놀라는 애가 어디 있담?

(강우 저 앤 형편없는 겁쟁이로구나.)

하지만 진남이는 며칠후에 진짜 겁쟁이는

강우가 아니라 바로 자기라는것을 가슴아프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날은 온 유격구가 떨쳐나서 보리가을을 하는 날이었다.

해가 뒤발 올리뻗을 때였다. 망원초로부터 적들이 온다는 신호가 왔다.

유격구는 부글부글 끓었다.

갓 유격구에 온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두석처럼 서있었다.

《여, 진남이. 뭘해? 빨리 가자.》

누군가가 소리치자 진남이는 고개를 돌렸다. 강우였다.

《어딜?》

《날 따라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하거던.》

강우가 말하는 중요한 일이란 식량창고앞에 쌓아놓은 보리단들을 안전한 곳에 옮기는 것이었다.

《진남아, 이 보리단을 저기 보이는 바위뒤로 있는 수림 있지? 저기까지 날라가면 돼.》

《저기까지?》

진남이는 단번에 두단을 량손에 쥐고 강우를 따라갔다. 한두번썩은 식은죽먹기로 날랐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갑작하던 보리단이 바위돌처럼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헉헉 숨이 턱에 닿기 시작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땀이 비오듯 했다. 두다리가 꼬이고 입안에서는 침이 말라들었다.

강우는 진남이와 사정이 달랐다. 조그마한 몸집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꼭 노루 한가지였다. 도랑을 휩 건너뛰고 짙은 다리를 재게 놀리는품이 처음이나 똑같았다.

(어휴, 저 앤 펄펄 나누나. 산삼을 먹었나? 하긴 몰라.)

마지막단을 지고 대피장소에 이른 진남이는 보리단과 함께 모로 쓰러졌다.

《힘들지?》

《오, 힘들... 아, 아니, 괜찮아. 요까지 것썩이야 뭐.》

말은 그렇게 했어도 진남이는 여전히 씩씩거렸다.

《자, 이젠 저기로 가자.》

《또 어디로 가야 하니?》

《어디냐구? 차 이런, 놈들이 온다는데 치러 가야지.》

(친다구? 우리같은 아이들이 일제놈들

을?!...)

진남이는 고개를 가웃했다. 몇걸음 따라 뛰며 그는 강우의 뒤잔등에다 물음을 던졌다.

《여 강우, 근데 우리같은 아...아이들두 어른하구 씹해서 이...이길수 있니?》

그는 엉기적거리며 뛰느라 숨이 찬지 말을 더듬었다.

《어른이 뭐야? 놈이지.》

《그...그래. 놈들하고 말이야.》

《왜, 겁나니?》

강우의 말에 진남이는 덴겁을 했다.

《거...겁나긴.》

속으로는 겁이야 네가 나겠지 아무렴 내가 나겠냐 하고 생각했다.

《너 처음이니까 겁날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일없어. 몇번 씹하느라면 놈들이 개미처럼 빈다니까.》

(아주, 제법인데?)

강우가 먼저 나는듯이 달려갔다. 그의 모습을 보며 진남이는 닭알침을 꿀떡 삼켰다.

(저 앤 분명히 산삼을 먹었어. 혼자 다 먹었을가? 나머지가 있으면 씹이 끝난 담에 달래야지.)

전투는 치렬했다. 여기저기에 폭탄구멍이 가 널려있고 언덕아래로는 놈들의 시체가 한벌 쪽 깔려있었다.

진남이는 강우를 따라 아릅드리 이빨나무가 서있는 곳으로 갔다. 그 나무에서 며칠전에 만들어놓은 돌무지까지는 스무걸음 쯤 되었다.

《진남아, 우린 여기에 있다가 유격대아 저씨들이 신호를 하면 돌무지의 바줄을 풀면 돼.》

잠시후 총소리가 울렸다. 도망갔던 놈들이 력량을 수습해가지고 다시 달려들었던 것이다. 진남이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야, 조놈들 악질이구나. 제 동무가 죽었는데두 그걸 막 밟구 와.》

《동무가 뭐야?》

진남이의 옆에서 신호가 오는가 살피던 강우가 눈을 부라렸다.

《동무 아니가 뭐?》

《안야.》

《아니문 뭐야?》

《음... 에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놈들

한테 좋은 소리 붙이문 안돼.》

《알았어.》

맥이 빠지는듯 한 소리가기는 하나 접수력 하나만은 좋은 진남이었다.

《애애앵-》

공기를 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린지 잘 알고있는 강우가 《엎드렷!》 하고 소리치며 진남이를 안고 재빨리 옆으로 몸을 날렸다.

《짱-》

고막이 딱 막히는듯 하며 잉- 하는 바람 소리가 났다. 땅이 드르륵 울리는것과 동시에 내장이 요동을 쳤다.

어디 먼곳에서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려오자 진남이는 몸을 꿈틀했다.

《진남아, 정신차려. 진남아-》

땅에 코를 박고 엎어졌던 진남이가 고개를 돌리며 눈을 배시시 뻐다.

《내가 지금 살안?》

《살았으니까 말을 하지. 너 아직 죽으려면 멀었다.》

《여, 죽는 길이 뭐 먼줄 아니? 이러다 죽는거지.》

머리를 흔들며 흠을 털고난 진남이는 숨을 길게 내쉬며 중얼거렸다.

《에이, 혼났다. 이자 그게 뭐야?》

《놈들의 박격포탄이야.》

《박죽포? 박죽으로도 포를 만드니? 에-개놈들... 별난걸 다 만들어가지고 날 고생시킨다니까.》

우정 그러는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진남이의 말은 참 우스웠다.

《저거- 강우야, 너 다리에 피나와.》

《음, 조금 다쳤어.》

강우가 적삼가생이를 찢어 상처를 처맸다.

《아프지 않니?》

《난 일없어. 진남아, 이제 신호가 오면 말이야, 네가 좀 바줄을 풀어.》

《내가?》

《그래. 아무렴 두다리가 한다리보다는 낫겠지 뭐.》

자기는 걸을수 없다는 소리였다.

(얼마나 아플가. 노루처럼 잘 뛰던 다린데...)

그 순간 하늘에서는 또 공기를 헤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험이 생긴 진남이는 어

느새 납작 엎드렸다. 포탄이 연방 날아들었다.

(아이쿠. 이놈들이 날 발견한게 아니야? 이러다 내 오늘 진짜 죽는가부다.)

머리를 들만 하면 터지는 박격포탄이다.

《진남아, 신호다. 빨리 가서 바줄을 풀어.》

강우가 진남이를 흔들며 소리쳤다.

(하필 이럴 때 신호가 울건 뭐람?)

진남이는 몸을 솟구치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몇걸음 못 가서 그는 또 엎드렸다. 파편들이 모기들처럼 앵앵거리며 날아갔다.

바줄까지는 불과 스무걸음길이었지만 그에게는 십리길처럼 멀어보였다.

《앗!》

갑자기 팔뚝시가 띠꺼졌다. 얼른 팔을 들어보니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진남이는 겁이 덜컥 났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마치도 《바줄을 풀기만 해봐라. 그럼 죽는다.》 하고 소리치는것 같았다.

문득 진남이의 눈앞에 난데없는 피물이 나타났다. 형체를 자꾸 바꾸며 너울너울 춤을 추며 돌아가는 피물은 왕— 하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겁에 질린 진남이의 눈에는 타래쳐오르는 흙먼지가 피물로 보였던것이다.

《진남아, 뭘하니? 어서 달려가 풀라!》

강우가 안타깝게 소리쳤지만 진남이는 꼼짝않고 엎드려있었다.

《에익!》

강우가 벌떡 일어나는것이 보였다. 걸음을 내짚었으나 인차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상처입은 오른다리에 힘이 가지 않았던것이다.

두팔과 윈다리로 기다실이 하며 바줄이 있는 곳까지 다가가는 강우를 진남이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가까스로 다가간 강우가 몸을 일으켜 바줄을 푸는것과 동시에 포탄이 날아와 터졌다.

진남이는 분명 강우의 몸이 훌쩍 날려가는것을 보았다.

《강우야!》

...

전투총화모임은 심각했다.

동무들의 비판도 칙처럼 아팠다.

《진남동무는 원쑤에 대한 적개심도 없는

동무입니다. 놈들이 우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포탄이 무섭다고 멍하니 엎더있기만 했습니다.》

《진남동무가 그렇게 겁많은줄은 몰랐습니다.》

《강우동무가 아니었다면 어쩔번 했습니다.》

《진남동문 비겁쟁이입니다.》

《처벌을 주어야 합니다.》

(?!)

이때 부상을 당하여 팔과 다리에 붕대를 둘러감은 강우가 손을 들며 일어서려고 하였다.

《강우동무, 앉아서 얘기해요.》

선생님이 앉으라고 손짓하자 강우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번에 진남동무가 잘못된것은 다 저때문입니다.》

《?! ...》

진남이는 그러는 강우가 뜻밖이어서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였다.

아동단원들도 강우의 말에 의아한 눈빛을 지었다.

《제가 진남동무를 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처음인 진남동문데... 진남동무에 대한 처벌은 제가 받아야 합니다.》

진남이는 자기가 잘못 들었는가 해서 눈을 쾅하니 뜨고 강우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동단원들을 둘러보았다.

《동무들, 물론 진남동무의 결함은 큼니다. 그러나 결함을 보기 전에 강우동무처럼 먼저 자신들의 결함을 찾을줄 알아야 합니다. 진남동무를 자기처럼 생각하고 이끌어주어야 해요. 오늘일을 통해서 모두가 교훈을 찾고 한마음이 되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강우의 자체비판으로 하여 진남이는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동무들의 머리속에 《진짜 겁쟁이》라는 인식만은 또렷이 새겨지게 되었다.

진남이는 한동안 우울하게 지냈다. 동무들을 보기가 부끄러웠다.

덩지 크게 겁은 잔뜩 많아가지고 남들의 말밖에 울랐다고 생각하니 웃음도 나오지 않았고 하는 일도 성수가 나지 않았다.

진남이는 강우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콩알만 한 바퀴를 무서워하던 애가 폭탄이 사정없이 튀는 곳에 무작정 뛰어들다니...

이 일이 있던 다음부터 진남이는 강우를 주시해보았다. 확실히 그에게는 대담한데가 있었다.

보리타작을 다 끝내고 학교앞마당에 오락회판이 벌어진 때 강우가 제일먼저 나섰다.

그는 서른두명이나 되는 동무들을 막 쥐고 흔들었다. 한명씩 노래를 부르고 앉으면 그 사이사이를 익살섞인 말로 이어가던 강우가 이번에는 건드러진 민요가락을 넘겼다.

진남이는 강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기라면 엄두도 못 낼 행동이었다.

그는 비록 나이는 같아도 자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진남이는 점점 강우가 곰처럼 보이고 자기는 오소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럼 이번엔 우리 혁명가요를 부르자. 진남동무, 잘 들어. 이제 동무가 다 배워야 할 노래들이거든. 그럼 시-작!》

강우가 먼저 선창을 댔다.

목에다 두른것은 붉은넥타이
등에다 짐을 지고서 훈련을 나간다
...

노래는 첫 소절부터 힘이 났다.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쨍 열리는 듯 하였다.

진남이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동무들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전 같으면 떠돌이살이, 머슴살이, 고역살이로 시들어버렸을 그들이 유격구에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강우만 놓고보아도 그랬다. 여느때는 바퀴 한마리때문에 화들짝 놀라던 소년이었지만 생활에서나 전투에서는 정반대다.

무엇때문일까?...

진남이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며칠 동안 고심하던 끝에 이런 답을 찾아냈다.

단련과 숙련이 용감성을 낳는다!

(나도 용감해질테다.)

진남이는 이렇게 마음을 도사려먹고 어느 날 아침 강우를 찾아갔다.

《강우, 오늘 적구에 나간다지?》

《음, 삼광마을 지하조직에서 유격구에 보내는 원호물자들을 우리가 실어와야 해.》

《그럼 거기에 나도 같이 가게 해주.》

《네가?》

강우가 놀라와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인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함께 가자. 오후에 떠나야 하니 준비 해.》

《알았어.》

준비라 할게 뭐 특별히 없었으나 진남이는 힘있게 대답했다.

삼광마을은 유격구로부터 30여리 떨어진 마을이었다. 삼광마을 지하조직에서 보내는 원호물자는 마을뒤산 동굴에 있었다.

아동단원들은 새초를 실은 마차에 그것을 숨겨가지고 오기로 작정했다.

두대의 마차가 동굴을 떠나 유격구로 가는 외통길에 들어섰을 때는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앉아있었다. 진남이와 강우가 앞마차에 타고 뒤마차에도 두명의 아동단원이 타고있었다.

진남이는 적구로 간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긴장했었다. 그런데 마차에 여러가지 원호물자를 척 싣고 유유히 유격구로 돌아오게 되자 마음의 탕개가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좀 싱거워보이기도 했다.

(이런게 적구투쟁이라면 난 백번도 하겠다. 용감성이나새나.)

진남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강우한테서 배운 노래를 흥얼흥얼 불러보기 시작했다.

무쇠골격 돌근육 소년남아야
애국의 정신으로 분발하여라
...

요 며칠사이에 배운 노래였다. 확실히 아동단노래들은 부를수록 힘이 솟았다. 자기가 부르던 타령하고는 대비도 할수 없는 노래였다.

그가 1절을 금방 끝냈을 때였다.

열댓걸음앞에 웬 낯선 사나이가 불쑥 나타났다. 진남이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사냥꾼이나 벌목꾼으로 생각했다.

《너희들 어디로 가느냐?》

사나이가 말고삐를 쥐고 세우며 물었다.

《우린 삼광마을에서 사는데 매바위골 포

수할아버지네 집에 이영감을 실어가요.》

강우가 미리 준비했던 대답을 했다.

《박포수 말이냐? 거 마침 잘됐구나. 나도 그리로 가는 길인데 같이 타고 가자구나.》

사나이는 아이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차에 넝름 올라탔다.

《아저씨 사냥군이냐요?》

진남이는 사나이를 훑어보며 물었다.

《그래. 저기 보이는 갈치령에서 노루사냥을 하는 사냥군이지. 그런데 여기 박포수가 유명한 포수라기에 경험이나 좀 배울가 해서...》

《예, 거 노루는 피가 약이라지요?》

《너 뭘 좀 아는구나. 봐라, 이제 노루 피다.》

사나이가 주머니에서 말린 노루피덩어리를 꺼내보이자 진남이는 신기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때 강우가 말허리에 채찍을 먹이며 말했다.

《아저씨, 갈치령에서 사냥을 한다니 뭐 좀 부탁해도 되나요?》

《부탁? 허, 내가 해줄수만 있다면야.》

《갈치령에 있는 사슴페골에 가면 말이에요, 우리 큰아버지가 봄부터 초막을 짓고 사냥을 하는데 큰아버지를 만나면 집에 빨리 내려와달라고 말해주세요. 큰어머니가 세계 알아서 그래요.》

《그래? 그러니 그 사람이 너의 큰아버지였구나. 글썄 어딘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 걱정말아. 내 꼭 전해주지. 글썄 사냥이라는게 그렇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니까.》

《고마워요.》

강우는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말고삐를 잡아당겼다.

《와-와-》

《마찬 왜 세우니?》

진남이는 영문을 몰라 강우에게 물었다.

《애들아, 우리 여기서 감자구이나 하다가자.》

《감자구이?》

진남이는 갑작스러운 강우의 행동이 리해되지 않아 다시 물었다.

《강우야, 빨리 가자마. 여기서 해를 지우겠니?》

《일없어. 이제 가도 할아버지가 없거든.

산에 갔다가 저녁늦게야 와.》

사나이가 마차우에서 한마디 했다.

《애두 참, 감자구이야 거기 가서 해두 되겠는데...》

《안돼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없을 때 사람이 오는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럼 좀더 가서 쉬는게 어때?》

강우의 대답을 기다리던 진남이는 흠칫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강우의 매서운 눈썹이 가시처럼 쿡 박혀들었던것이다. 강우의 조심스러운 눈움직임속에서 진남이는 그제서야 무엇이 잘못되었다는것을 느꼈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사나이가 벌써 눈치를 채고 마차우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던것이다.

《깜짝말았!》

진남이는 눈이 왕사발만 해졌다. 사나이의 손에 쥐여진 시커먼 권총이 강우와 자기 그리고 동무들을 겨냥하고있었던것이다.

(영?! 아...아니, 그럼 이 사람은?...)

밀정놈은 강우의 먹을 움켜쥐며 지껄었다.

《요놈자식, 내 눈은 못 속인다. 날 어떻게 알아봤지?》

강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소리쳤다.

《흥, 사슴페골엔 우리 큰아버지가 없다.》

갈치령에 사슴페골은 있지만 큰아버지란 말은 그가 지어낸 말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사나이는 강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던것이다. 사나이의 말에서 강우는 그가 갈치령에서 사냥하는 사냥군이 아니라는 답과 유격구를 노리고 기여드는 밀정놈이라는 확신을 이끌어냈던것이다.

《그래? 아주 똑똑한걸. 그렇다, 난 유격구의 감시망을 알아내기 위해 여기로 온 손님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짹소리하거나 수상하게 놀면 가차없이 썩죽이겠다. 판생각 말고 내가 하자대로 해.》

진남이는 가슴이 덜컥했다. 급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가 없는데다가 어느 순간에 불을 토할지 모르는 권총을 보는 순간 다리가 다 매사해졌다.

밀정놈은 마차를 산속으로 돌리게 하고는 얼마쯤 안 가서 모두 내리라고 하였다.

《이젠 산길로 해서 망원초가 있는 곳으로 날 안내해.》

진남이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강우를 따라걸었다. 걸으면서 그는 경각성없이 놀랐던 자신이 후회되었다.

(강우의 말에서 눈치챘어야 하는건데... 이번에도 또 나때문에 일을 망치는구나. 어쩌나. 망원초가 드러나면 유격구가 위험해지겠는데. 그런데 강우는 왜 그냥 가기만 할가?)

진남이는 속이 한줌만 해서 동무들과 함께 말없이 걸어갔다.

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선 수림은 대낮에도 어두운 그늘을 던지고있었다.

밀정놈이 갑자기 멈추라고 소리쳤다.

《야, 이 길이 망원초로 가는 길이 맞아?》

《맞아요. 이제 조금 가다가 왼쪽으로 꺾으면 망원초로 올라가는 오솔길이 보이거든요.》

강우가 아주 자신있게 대답하자 밀정놈은 뺨새눈을 쪼프리며 지껄었다.

《이놈자식, 딴 꿈공이를 했다간 그 자리에서 싸버리겠다.》

《그런데 아저씨, 쏘는건 아저씨맘이지만 그렇게 총을 들고 가다간 의심을 살거예요. 여긴 눈이 많거든요.》

《으응?》

밀정놈은 강우의 말이 그럴듯해보여 총을 피춤에 찢러넣었다.

그러는사이 강우가 동무들에게 어떤 눈짓을 해보였다. 진남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으나 철국이는 알았다는듯 고개를 까딱이고있었다.

진남이는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였다. 강우의 눈치를 봐선 무슨 피를 쓰고있는것이 틀림없었던것이다.

그는 그 피가 무엇인가를 인차 알아차렸다. 이제 조금만 가면 함정이 있는 가둑골을 지나게 되었던것이다. 혼자서는 올라오지 못할 그 함정은 유격구로 새여들어오는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한것이였다. 그런 함정은 주요골짜기들에 은밀히 설치되어있었다. 함정들의 위치는 유격구사람들은 물론 아동단원들도 다 알고있었다.

강우는 밀정놈이 산길로 가자고 할 때부터 함정으로 유인할 궁리를 생각해뒀던것이다. 그리고 동무들에게 눈짓을 하였었다.

진남이는 가둑골에 들어서기 바쁘게 함정 표식부터 찾았다. 가지를 톱으로 자른 흔적이 있는 나무옆에 바로 함정이 있었다.

아동단원들은 무사히 함정을 통과하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밀정놈은 허양 함정에 빠지고말았다.

《만세!》

아동단원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만세를 불렀다.

《자, 이렇게 하자. 철국이 넌 망원초에 알려 유격대아저씨들을 오라고 해라. 그리고 난 이놈을 지키고있을테니까 진남이와 호철인 마차를 몰고 유격구로 먼저 가.》

강우의 지시에 아동단원들은 신속히 움직였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며 진남이는 많은것을 생각했다.

용감해지려고 이번 운반조에 참가하기는 하였지만 정작 원쑈놈앞에서 자기는 또 겁을 먹었다. 하지만 강우는 원쑈놈을 가려보았을뿐아니라 함정으로 유인하여 밀정놈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하여 용감성은 지어먹는다고 다 발휘될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강우야, 너 무섭지 않던?》

저녁총화모임이 끝나자바람으로 진남이는 강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나? 나도 처음엔 겁이 좀 났어. 하지만 진남아, 우리가 다 겁을 먹으면 유격구는 누가 지키니? 우리한테 유격구는 자기 목숨과 같애. 유격구를 잃으면 우린 놈들한테 다 죽거던. 안 그래?》

《...》

진남이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강우의 말이 모두 옳았던것이다.

유격구!

정말 유격구가 아니었다면 그는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산에 부대기로 일군 밭에 감자를 심었다고 몽땅 짓밟개며 돌아가는 산림간수놈을 때려 부상을 입히고 숨어지내던 진남이와

그의 아버지가 끝내 놈들의 손에 잡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준것은 유격대원들이었으며 그들에게 꿈같은 생활을 안겨준것이 바로 유격구였다.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꿈같은 세상, 여기서 진남이는 처음으로 발편잠을 자보았고 마음껏 활개치며 뛰어놀아보았다. 노래를 배웠고 그 노래를 동무들과 함께 온산관이 울리도록 목청껏 불러보았다.

비록 며칠 안되는 나날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이름으로 된 발이 차레지고 돈 한푼 내지 않고 공부도 한 그야말로 행복한 나날이었다. 착취하는 놈도 없고 누구나 다 서로 돕고 이끌며 사는 별세상이었다.

그래서 강우는 유격구를 자기 목숨이라고 생각했으리라. 그래서 죽음도 무릅쓰고 싸웠으리라. ...

진남이는 비로소 강우의 용감성이 어디서 샘솟는가를 어렵뜻이나마 알수 있었다.

(난 언제면 강우처럼 될까?)

×

놈들의 검질긴 공격은 계속되었다. 일제가 유격구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초토화해버릴 작정으로 대륙침략무력의 일부를 유격구 《토벌》에로 돌리고있는데 대처하여 앉아서 방어만 할것이 아니라 맞받아 나가서 적후방도 들이치고 놈들을 혼란에 빠뜨려야 한다는 유격대사령부의 지시가 내려왔다.

사령부의 지시를 집행하자면 우선 놈들을 알아야 했다.

유격구에서는 삼광마을에 있는 지하조직에 연락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과업을 아동단에 맡겼다.

《선생님, 저에게 임무를 맡겨주세요..》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동단원들은 두눈에 불을 달고 몸들을 솟구쳤다.

《동무들, 우린 이번 임무를 어떻게 해서나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무를 강우동무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우동무.》

지도원선생님이 부르자 강우가 일어났다.

《이번 임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연락임무

를 두명 보내기로 했어요. 강우동무는 누구와 함께 가겠어요?》

《...》

진남이는 자기가 가고싶었다. 하지만 지금껏 겁을 앞세우면서 눈치없이 행동해온 자기를 과연 동무들이 찬성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남동무와 함께 가겠습니다.》

진남이는 강우의 말에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 강우가 날 추천했나?

그는 강우가 더없이 고마왔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섰다. 유격구에 와서 처음으로 가는 연락임무의 길이어서 무사히 수행하고 돌아올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산길을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이제는 어지간히 산길에 익숙한 진남이는 강우를 어렵지 않게 따라갔다.

《여 강우야, 전번에 보리단 대피시킬 때 말이야, 난 네가 산삼뽕땀이라도 먹었는가 했어. 그런데 알고보니 단련이 보약이더구나.》

《단련이 보약이라... 야, 너 그 한마디 정말 잘했다.》

강우가 활짝 웃으며 대답하자 진남이는 눈섭을 쫓겼다.

《뭐? 그럼 이때까지 한 내 말은 못했단 소리가?》

《아, 아니. 잘했는데 이번엔 더 잘했다, 그 소리야.》

《하하하.》

그들은 서로 손을 잡으며 즐겁게 웃었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진남이보다 두어걸음 앞서가던 강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얼굴에 심각한 빛을 띄우며 말했다.

《암만 생각해봐도 우린 같이 가면 안되겠어. 놈들의 경계가 심한데 둘이 함께 가다가 잡히면 다거던. 그래서 내가 한 백걸음쯤 앞서가겠으니 넌 조용히 날 뒤따라와. 이걸 연락쪽지다.》

《뭐? 싫어.》

진남이는 대뜸 거절했다.

《쪽지야 네가 전달해야지 않니. 그리구 난 뒤 앞에서 가면 안되지?》

《안되지야 뭘. 네가 길을 잘 모를가봐 그

런거구 또... 앞에 서면 좀 위험하거든.》

《글쎄 내 그럴줄 알았더니까. 너 그러니 날 아직도 겁쟁이로 보는구나.》

진남이는 짐짓 성을 내며 고개를 퓌 돌렸다. 바빠난것은 강우였다.

사실 그는 진남이를 생각해서 그랬고 제가 런락임무경험이 진남이보다 더 많았기에 앞서겠다고 했을뿐이었다. 그런데...

《진남아, 난 널 겁쟁이로 보지 않아. 좋아, 그럼 네가 앞에 서라. 그런데 너 길은 아니?》

《내야 유격구에 들어오기 전에 삼광에서 2년 살지 않았니. 그리고 유격구로 들어올 땐 바로 이 길로 왔거든.》

《하긴 그렇지. 진남아, 조심해.》

《걱정마.》

대답은 이렇게 했으나 사실 진남이는 은근히 걱정되었다. 제발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숲속은 고요했다. 이따금 바람이 나무가지들 지나치며 잎사귀들을 흔드는 소리와 이름모를 새들이 가락맞게 우는 소리가 들려올뿐이었다.

잡관목들을 헤칠 때마다 싱그러운 풀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산마루에 올라선 그는 대바람 감탄을 내뿜었다.

《히야—》

눈앞에 넓은 공지와 함께 먼 산발들이 한눈에 바라보였던것이다. 마치도 한쪽의 그림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좋은 경치를 혼자 보는것이 안타까웠다.

(강우와 함께 올라왔더라면 좋았을걸. 이제라도 기다릴가? 아니, 빨리 임무수행하고 돌아올 때 함께 봐야지.)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었다. 그 길이 끝나면 삼광마을 초입새에 들어서게 된다.

마을방향쪽으로 길을 잡고 내려가려고 할 때였다. 언제 나타났는지 누런 군복을 입은 일제놈 댓놈이 숲속을 뒤흔으며 올라오고있는 것이 보였다.

진남이는 얼른 잡관목뒤로 몸을 숨겼다.

놈들은 아주 조심조심 움직이며 산마루로 접근하고있었다.

(어떻게 한다?)

사실 그가 놈들을 먼저 발견한 조건에서 그냥 숨어있었다면 더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오는 강우가 위험했다. 만일 강우가 놈들에게 붙잡힌다면 놈들은 어떻게 해서나 런락쪽지를 찾아내고야말것이었다.

그다음은...

진남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했다.

놈들은 이런 외따른 곳에서 청년들이나 소년들을 보기만 하면 통신런락을 다닌다고 마구 잡아다 가두고 고문하고 나중에는 총

살했던 것이다.

안된다!

진남이는 그냥 숨어있을수가 없었다. 강우가 위험하고 임무를 수행 못하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유격구가 놈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무작정 몸을 일으켰다.

한걸음 옮기려는데 마침 발밑에 돌배 두 알이 보였다. 그는 얼른 돌배를 손에 들고 그것을 씹어먹으며 산아래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서랏!》

고막을 찌르는듯 한 고함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면 강우가 틀림없이 눈치챈으리라 생각한 진남이는 엉엉 우는 시늉을 내며 달릴수 있는껏 달려갔다. 한걸음이라도 강우에게서 멀리 가야 강우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수가 있었던 것이다.

진남이의 예견대로 놈들이 모두 그를 잡으려고 달려왔다.

《이놈새끼, 서라는데 뛰긴 어디 뛰여?》

먼저 다가온 놈이 그의 뒤덜미를 잡아 나꾸채는 바람에 진남이는 옆으로 나동그라졌다.

진남이는 게걸스럽게 돌배를 씹으며 울음소리를 더 크게 냈다. 우정 우는척 하는데도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게 참 이상했다.

《이자식, 왜 달아났는가, 양?》

얼굴이 말상처럼 길죽한 놈이 그의 따귀

를 후려쳤다.

《아야야, 왜 때려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난... 배가 고파요. 며칠째 굶었어요. 난 아버지, 어머니도 없어요.》

《이새끼야, 거짓말하겠는가, 양? 네너석이 유격대와 내통한 놈이지?》

《유격대라는건 뭐나요? 난 몰라요.》

진남이가 그냥 뺨대자 놈들은 앙양불락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모르면 좋다. 배가 고프단 말이지? 우리가 실컷 먹여주겠으니 가자.》

《정말 먹여주겠나요?》

진남이는 기뻐하는체 하며 옷을 툭툭 털며 말했다.

《자식, 헨소리 말구 어서 가자.》

놈들한테 붙들려 삼광마을에 등지를 튼 《토벌》사령부 지하실에 갇힌 진남이의 머리속에는 온통 강우 생각뿐이었다.

강우가 무사히 런락임무를 수행했을까? 그도 혹시 다른 놈들한테 잡히지나 않았을까?...

이튿날 진남이는 지하실끝에 있는 꽤 널직한 방으로 끌려갔다. 그곳은 놈들이 리용하는 고문실이였다.

놈들은 진남이가 들어서기 바쁘게 몽둥이로 내려치며 한절반 초절입했다.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다시 물벼락을 안기고 갖은 고문을 들이댔다.

《여기선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살아서 못 나간다. 그래 지금 몇살이지?》

진때가 오른 쏘파에 까치다리하고 앉아있던 몸이 저가락같은 놈이 진남이에게 묻기 시작했다.

《열세살이야요.》

《뉘야? 이자식이 첫마디부터 거짓말을 해?》

눈앞에서 불이 번쩍했다. 그놈이 어느새 달려들어 진남이의 귀뺨을 때렸던 것이다.

진남이는 억울했다. 그는 그때처럼 자기 몸이 큰데 대해 후회한적이 없었다.

《정말이야요. 하긴 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어른인가 해요.》

《좋다, 열세살이라고 하자. 그래, 무슨 임무나 받았지?》

《임무라는건 또 뭐나요? 먹을거나요?》

《이새끼, 아직도 뺨대겠는가, 양?》

《어젠 실컷 먹여주겠다고 하구선 왜 때



려요?》

《네놈의 몸집이나 봐선 며칠 안 먹어도 죽진 않는다. 그래 때맞아 죽겠는가 아니면 고스란히 말하겠는가?》

《아저씨, 뭘 말하라는거야요? 난 떠돌아 다니는것밖에 몰라요. 제발 날 때리지 말아요. 막 아파요.》

사실 그는 진짜 아팠다. 업살이 아니었다. 놈들한테 붙잡힐것을 각오했을 때에는 고문과 매가 이렇게까지 아플줄은, 참기 어려울 줄은 생각 못했다.

되려 자기 몸에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알면 놈들이 인차 놓아줄것이라고 걱정했었다.

《그 산엔 왜 나타났지?》

《몇번 말하랴요? 난 배고파서 산열떡 따 먹으러 갔됐어요. 마을에선 누가 먹을걸 주나요. 모두 각쟁이들이야요.》

《칙쇼—》

또다시 무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진남이는 겁이 덜컥 났다.

(이러다 내가 죽는게 아닐까?)

살을 지지는 벌건 불꼬챙이, 비행기고문에 리용되는 거친 쇠사슬, 피에 절은 가죽 채찍...

모두가 다 사지가 떨릴 정도로 무서운 고문도구들이었다.

《이놈이나 래일 총살해버려, 시끄럽다.》

진남이가 두려워하던 그 죽음이라는것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는 피창너머로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문득 지나온 나날들이 눈앞에 어려왔다.

고향마을의 악독한 박지주의 손에 어머니가 맞아죽던 날이며 눈물속에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던 그날도 생각났다.

삼광마을에서 아버지따라 삼집을 지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나날들과 열병에 걸린 아버지를 손달구지에 싣고 밤새껏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허기져 쓰러지던 때도 어제런듯 떠올랐다.

정말 죽지 못해 살던,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던 악몽같은 나날들이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또 다른 생활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유격구에서의 즐겁고 행복했던 나날들이었다. 그는 이제 죽으면 그 행복을 더

는 맛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나날들이 이 세상 억만재부와도 바꿀수 없을만큼 소중한고 귀하게 여겨졌다.

진남이는 동무들이 그리웠다.

지도원선생님이며 강우, 지어는 자기를 엄하게 처벌하자고 하던 분단장도 못 견디게 보고싶었다. 옥을 먹고 고치고 부끄럼도 타고 용감해지려고 애쓰던 그런 나날들이 바로 행복한 생활이었다는것을 그는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뼈저리게 느꼈다.

다시 그런 생활을 할수만 있다면 옥먹어도 좋았다. 비판을 받아도 좋고 처벌을 받아도 좋았다. 그저 동무들과 함께 서로 웃고 떠들며 꿈같은 나날들을 살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을것 같았다.

그는 살고싶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유격구로 돌아가 행복을 누리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그 행복한 나날들, 좋은 동무들을 없애 보겠다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 일제놈들을 생각하니 가슴속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일었다.

(안된다, 이놈들! 우리 유격구는 못 다친다.)

진남이는 자리에서 가까스로 일어섰다. 온몸에 힘이 움츠음쳤다. 가슴을 졸이던 무서움도, 겁도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지도원선생님, 제 걱정 마십시오. 동무들! 나 끝까지 용감할래!)

x

후날 항일유격대원이 된 진남이는 그때를 가끔 돌이켜보곤 하였다.

그 다음날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진남이는 강우와 삼광마을의 지하조직원들에 의해 구원되었었다.

진남이는 신입대원들이랑 용감성의 비결에 대해 물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곤 하였다.

《우리는 행복을 귀중히 여기라구.

우리의 행복이 어떤 행복인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 안겨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당겨가는 이 성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행복이거던. 이 행복을 귀중히 여기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용감성이 생긴다네.》